



# (주) 부경사

— 방사성동위원소 전문취급회사 —

이번 호에는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업을 하는 (주) 부경사를 탐방하였다.

서울 여의도의 한복판인 증권회관빌딩에 자리잡고 있는 이회사는 우리나라 금융계의 중심지답게 하이클라스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무실 분위기와 말끔한 직원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1980년 4월에 창업되어 금년에만 10년이 되는 해라서 직원들이 갖는 각오와 경영진에서 갖는 포부는 대단했으며 이회사는 방사성동위원소에 관한 모든 것을 취급할 수 있는 판매회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신속, 정확, 신용을 모토로 하여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있었다.

실제로 이회사에서는 의료용, 연구용, 공업용, 산업용등에 사용되는 모든 중

류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관련기자재, 의료용 기자재를 비롯하여 비파괴검사용 X-RAY FILM 및 비파괴검사용 기자재 등을 취급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외국의 첨단 과학기술제품을 우리나라에 보급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보람을 갖고 일을 하는데 아직은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 이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요구를 다 따르지 못하는 미약함을 감출 수 없다고 아쉬워 하며 부끄럽다고 했다. 하지만 젊은 사장님에게서 엿보이는 패기와 추진력이

반드시 이분야에서 돋보이는 역할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투지에 차 있었으며,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까지 전파 되어 있는 듯, 한사람 한사람의 얼굴이 일에 대한 정열이 역력했다.

회사 사랑거리를 들려 달라는 말에 사양하겠다고 굳이 말머리를 돌려, 따로 알아 볼 수밖에 없었다.

이회사는 직원들의 자질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 특별히 교육에 대한 지원이 지대하다고 한다. 30여명의 직원중 반이상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개별적인 어학교육 및 운전 면허교육 까지도 회사보조로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직원은 결혼후의 근무도 보장되어 있으며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 상조회 출자금을 일정금액이 적립될

때까지 전직원 부담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100%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다.

직원들의 단합과 체력증진을 위해 볼링클럽, 등산회, 낚시회 등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봄, 가을 야유회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한다.

끝으로 한마디 말씀을 부탁드렸더니 (주) 부경사가 오늘과 같이 존재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많은 선배님들이 이끌어 주었기 때문임을 강조하며 깊이 감사한다고 했다.

※ 기념촬영('89 봄 양평 용문사앞)

